



즉시 배포용: 10/28/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NIAGARA FALLS**를 위한 영구 예비역 임무를 식별하도록 미국 공군에 요청

주지사, USAF 장관에게 탱커 임무 반환을 검토하도록 요청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미국 공군장관에게 보낸, Niagara Falls 공군예비군 기지의 제914 항공수송비행단의 미래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이 공군 예비군 부대는 8대의 C-130 수송기를 운항하지만 그 운명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투명합니다. 다른 모든 공군 목표가 의존할 제914 항공수송비행단의 장기적인 “영속 임무”는 공군이 이 기지에서 중항공기를 계속 운항하는 데 긴요합니다. Cuomo 지사는 탱커 재공급 임무를 그러한 가능성 중 하나로 식별하였으며, 이 기지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뉴욕주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공군장관 Deborah Lee James에게 보낸 주지사 서한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년간, Niagara Falls 공군예비군 기지는 미국 공군의 힘과 대비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은 그것이 미래에도 잘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기지를 위한 타당한 영속 임무를 수립하기 위해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본인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USAF와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Niagara Falls 공군 예비군 기지는 Niagara 카운티 최대의 단일 장소 고용주로서, 3,000여명의 남녀 공군과 병사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의 년 경제적 영향은 1억 4000만 달러 이상인데, 여기에는 이 기지가 Buffalo Niagara 국제공항과 같이 위치하기 때문에 Niagara Frontier 교통청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받는 직접 지불금이 포함됩니다. 이 기지는 여러 차례의 기지 재정렬 및 폐쇄와 공군 요원 변경으로 삭감과 폐쇄의 표적이 반복적으로 되어왔습니다.

국방 예산 억제 및 중거리 수송기에 대한 공군의 강조 감퇴로 2013년 이래 C-130 비행대가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잔여 비행기들이 2019년 이전에 고가의 계기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의 규제는 상당한 비행 제약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기지 이용은 더욱 제한될 것입니다.

금년 초에 NFARS는 2017년부터 기존 KC-135 Stratotankers를 교체하도록 되어있는 신형 KC-46 Pegasus 탱커를 받을 것으로 전국적으로 간주된 18개 공군예비군 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교체에는 수 십년이 걸릴 것이며, 그 동안에 공군은 재급유 임무를 위해 KC-135에 계속 의존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형 탱커 개발의 지연으로 현재 및 장래의 재급유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KC-135의 재배치 및 지속적 사용이 요구될 것입니다. NFARS는 그러한 탱커들 중 일부를 위한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비록 현재는 탱커들의 본거지가 아니지만 NFARS는 주방위 공군의 제107 수송단이 NFARS에서 그 비행기를 10년 이상, 즉, 1990년대 말부터 BRAC 2005의 결과로 탱커가 제거될 때까지 KC-135 임무를 맡기 위해 필요한 것의 대부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NFARS는 공군이 2017년에 KC-46을 받기 시작할 이 기지에 KC-135 탱커를 잠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장소가 됩니다. C-130 수송기와 달리 이 탱커는 2019년 이후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공역에서 작전하기 위해 계기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지사 참모들은 Niagara 군사협의회, Niagara 카운티 및 의회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C-130을 운항하는 수송 임무로부터 탱커를 운항하는 재급유 임무로의 임무 전환을 겪는 제914 항공수송비행단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지사실은 지난 2년에 걸쳐 워싱턴의 고위 공군 리더들과 지역사회 리더들과의 여러 차례의 회의를 주선하였고, 2015년 9월에는 NIMAC 리더들이 Carlton Everhart 장군과 그의 참모들을 만나기 위한 St. Louis 소재 공중이동성사령부 방문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로 비준된 AMC 사령관으로서 Everhart 장군은 모든 화물 수송 및 재급유 임무를 담당합니다.

Cuomo 지사가 James 장관에게 보낸 서한의 사본은 Everhart 장군과 공군예비군 사령관인 James Jackson 장군에게도 발송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